

깨끗해야 번영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트러스트(신뢰)'의 저자인 미국 조지 메이슨대학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정치학교수의 주장을 빌리지 않더라도 '거짓이 난무하고 신뢰가 없는 사회'가 경쟁력이 있을리 만무하다. '늑대가 왔다!'고 마을사람들을 속이며 장난치던 양치기소년의 우화는 거짓의 결과가 결국 파멸임을 일깨워준다. 미국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미국 국부인 '워싱턴대통령의 정직'을 배운다.

한국은 어떨까. 5.16구테타후 박정희장군은 '정권이양약속'을 뒤집고 집권했다. 백담사로 오가며 감옥까지 들락거린 전직대통령들은 수천억원의 비자금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세탁(?)된 만원짜리 현찰이 가득 담긴 거액의 사과박스 무더기를 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일할맛을 잃었을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은 90개국중 33위에 그쳤다.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역대 최고 점수라지만 공직자의 부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구선진국은 물론 아시아권에서도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보다 뒤쳐진 상태다.

한국경제에 대해 프레드릭 미시킨 콜롬비아대학 경제학교수 역시 '금융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구조조정의 열쇠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업의 경영성적을 계수화한 회계자료에 대한 분식이야말로 투자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여 결국 기업이 고사하게 만든다. 회계의 투명성은 정치, 사회의 투명성과 비례한다. 또 그것을 빌미로 대부분 기업 스스로도 부패를 확대생산한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라는 S바이오, D해양 등도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다. 이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분식회계를 법원파산부에 신고하는 해프닝을 벌이고 있다.

오너의 지시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분식회계한 D그룹등, 한국기업의 수많은 사례들은 이제 뉴스도 못된다. 종합병원에 납품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 줄 뒷돈때문

에 제약회사가 매출액의 10%정도까지 허위로 장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에는 놀란 입이 다물 어지지 않는다. 새롭게 벤처스캔들도 구약을 태연히 반복했다.

원래 한국인들은 백의민족으로 깨끗함과 그것을 지키는 선비를 존중해 왔다. 산업화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더러워진 점이 있어왔다.

이제 무엇보다 깨끗함을 회복하고 유지해야겠다.

미래는 부(富)의 창출 메커니즘의 핵심에는 지식과 사람이 있다. 그래서 깨끗함이 법과 시스템보다 선결과제다. 깨끗지 못한 상태의 지식과 인적자원은 사태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고 효율을 높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깨끗함으로 자유를 찾자.

깨끗함으로 유능함을 담자.

깨끗함으로 번영하자.

